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

제약/바이오 이슈 모니터링: 드디어, 시장이 기다리던 빅딜

이희영 heeyoung.lee@daishin.com

2025.11.13

ISSUE COMMENT

에이비엘바이오: 릴리와 3.8조원 빅딜, 누적 기술이전 규모 약 10조원 달성

11월 12일 에이비엘바이오는 글로벌 빅파마 일라이 릴리(Eli Lilly)와 자사의 혈액뇌장벽(BBB) 투과 플랫폼 'Grabody-B'에 대해 총 3.8조원 규모의 기술이전을 체결함. 이번 계약은 2022년 Sanofi(1.2조원), 2025년 4월 GSK(4.1조원)에 이은 세 번째 조 단위 대형 계약으로, 누적 기술이전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함. 단일 플랫폼으로 다수의 빅파마와 연속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례적인 사례로, Grabody-B의 기술적 신뢰도와 사업 확장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음. 특히, 사노피에 기술이전한 ABL301의 임상 1상에서 확보된 안전성 및 PK(약동학) 데이터가 릴리의 기술 검증 근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. **릴리는 알츠하이머와 비만치료제 시장을 동시에 선도하는 글로벌 핵심 플레이어로, 이번 파트너쉽의 전략적 의미가 큼. 이번 계약은 릴리의 주력 분야인 알츠하이머 치료제 파이프라인 강화뿐 아니라, 향후 비만/근육질환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.** 특히, 향후 후속 파이프라인의 임상 진입과 초기 데이터 확보 시점에 따라 Grabody-B 플랫폼의 밸류에이션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, 이는 에이비엘바이오 기업가치의 중장기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

애널리스트 코멘트: 헬스케어 섹터 Overweight(비중확대) 의견 유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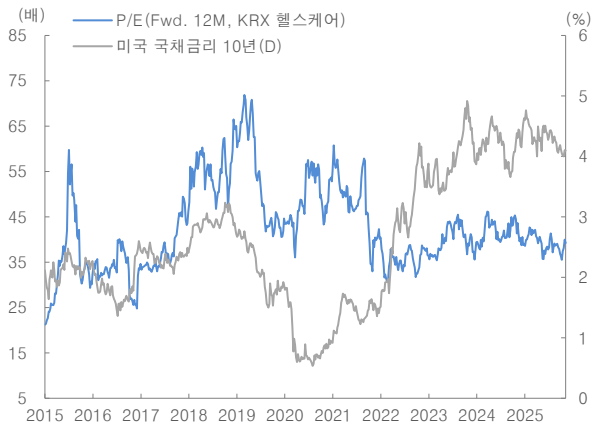
이번 계약은 개별 기업의 호재에 그치지 않고, 국내 제약/바이오 섹터 전반의 투자 심리가 개선될 수 있는 계기로 판단됨. 상반기 올릭스, 알테오젠, 에이비엘바이오 등 잇단 기술이전 성과로 코스닥(바이오텍) 중심의 강세가 이어졌으나, 하반기에는 시장 기대를 충족시킬 대형 딜 부재로, 섹터 전반이 횡보세를 보임. 동시에 코스피(의약품)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및 약가 인하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었음.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1) 금리 인하 사이클 진입, 2)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 절벽에 직면한 빅파마들의 M&A 및 라이선싱 수요 확대 기대로, 나스닥 바이오텍 지수는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음. 또한 S&P 헬스케어 지수(빅파마 중심)도 10월 이후 약가 및 관세 불확실성 완화로 반등에 성공함. 이러한 **우호적인 대외 환경 속에서, 이번 대형 계약은 섹터의 투자 심리 개선에 기여하며, 대형주(코스피)와 바이오텍(코스닥)의 동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**. 현재 국내 헬스케어 업종의 12개월 선행 **P/E 멀티플은 39.1**배로, **과거 10년 평균(42.6배) 및 코로나19 펜데믹 유동성 장세(평균 51.4배)를 하회하는 수준**으로,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며, 섹터 투자의견 'Overweight(비중확대)'를 유지함

그림 1. 2025 년 국내 제약/바이오 주요 라이선싱 계약

날짜	피인수기업	인수기업(국가)	계약규모	모달리티
2 월	**올릭스**	**일라이 릴리(미국)**	**910**	**RNA**
	지놈앤컴퍼니	Ellipses Pharma(영국)	비공개	면역항암제
	앱클론	TCT Health(터키)	비공개	CAR-T
3 월	**알테오젠**	**아스트라제네카(영국)**	**1964**	**플랫폼**
4 월	**에이비엘바이오**	**GSK(영국)**	**4,100**	**플랫폼**
5 월	알지노믹스*	일라이 릴리(미국)	1,900	단백질
	나이벡	미국 소재 제약사	595	펩타이드
6 월	에이비온	비공개	1,800	항체
	올릭스	로레알(프랑스)	비공개	siRNA**
9 월	지투지바이오	유럽 소재 제약사	비공개	플랫폼**
10 월	에임드바이오*	베링거인겔하임(독일)	1,400	ADC
11 월	**에이비엘바이오**	**일라이 릴리(미국)**	**3,807**	**플랫폼**

자료: 각 사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*비상장사, **공동 연구개발 계약

그림 2. KRX 헬스케어 P/E 39.1 배 (vs 10 년 평균 42.6 배)



자료: Quantiwise, 대신증권 Research Center

[Compliance Notice]

금융투자업규정 4-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,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.

(담당자: 이희영)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